



데스크
칼럼 _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

본지 김한웅 부장

보건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대유행에 대비,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도상훈련 “처용”을 취소했다고 한다.

“처용”은 전염병 역신을 물리쳤다는 설화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늦게나마 질병관리본부가 도상훈련의 6월 실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우리 육계인들의 강력한 항의 및 실행력 뒤에 나온 것으로 뒷맛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불행 중 다행이라는 판단이다.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고 또 사람에게까지 감염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데 어느 누구도 나무랄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상에 이의를 제기할 따름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

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3~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당시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에 참여했던 사람 중 4명에게서 항체 양성결과를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당시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 중 채혈검사 등을 희망하는 경우 3월 한달 간 채혈해 항체 형성여부를 확인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는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육계사육농가를 비롯 오리사육농가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 판매와 관련된 사람들은 막대한 물적피해와 함께 커다란 심적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한국에서도 사람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막연한 소식만 전해들은 가금산업 관련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병력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힌 무책임한 발언의 연속이었다.

2년이나 지난 간 뒤에 그것도 국내에서도 아닌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에 의뢰한 결과 양성방응이 나왔지만 발병은 없었다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추가로 1,600명의 혈청을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 의뢰했으며 방역에 참여했던 나머지 사람에게도 희망할 경우 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나선 대목에선 무엇인가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자가 밝힌 바와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인체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다”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에 국내 가금관련인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닭고기, 계란 소비가 급감하고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전세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빠른 확산으로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홍역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 터라 지금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해도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나라에는 170만명의 국민들이 가금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당시 2명이 목숨을 끊고 수많은 농가들과 회사 그리고 소규모 외식업체들이 파산의 길을 걸었고 아직도 상당수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양계농가들도 보건당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전략 마련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계농가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사전에 한번만이라도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것이며 사전에 관련부처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뿐이다.

양계농가를 비롯 관련업계가 갖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그 누구 못지 않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보다는 이것으로 인해 파생될 여파가 더 무서운 것이다. 바로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